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
	배포일시	2021. 11. 26.(금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 물류산업과	담당 자	• 과장 박진홍, 사무관 이양구, 주무관 한승한, 최용민 • ☎ (044) 201-4018, 4019, 4020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	

## 화물연대 파업 관련 : 11월 26일 상황

### □ 화물연대 동향

- 각 지부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, 총 3,580명(경찰추정) 참여 중
  - 주요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(의왕ICD)와 시멘트·철강 등 화주공장  
진·출입로 중심으로 집결하였고,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 출입방해를  
시도함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이 즉시 조치하고 있음
- 내일(11.27)은 각 지부별 파업 참여인원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(잠정)에  
집결하여 공공운수노조 집회(경찰 추산 1만명 규모)에 참여할 전망

### □ 항만 운영상황

-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,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\*  
(73.5%, 잠정)은 평시와 유사하며 반·출입량(1.1만TEU, 잠정)은 사전수송  
조치 등 운송일 조정에 따라 평시(3.8만TEU)의 30% 수준

\*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

### □ 주요 조치사항(11.26) 및 전망

- 현장으로부터 시멘트 생산공장 4개소의 출입방해 동향을 접수하여  
경찰의 협조를 통해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음

○ 일부 시멘트와 철강 생산공장 등에서 부분적인 출하 차질이 있으나,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으며 국가적인 물류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

\* 현재 시멘트는 남부지역(대전·포항·군산 등)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출하 중으로, 화물연대와 마찰을 피하려는 차주들이 의왕 유통기지로 운송을 자제하는 상황

○ 정부는 각 지역별 파업 동향을 지속 파악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,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**화물차 안전운임제**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화주·차주·운수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임

**< 지역별 집회 현황 : 11.26.(금) 현재 기준 >**

지역	11.25	11.26 현재	지역	11.25	11.26 현재	지역	11.25	11.26 현재
부산항	100	500	의왕ICD	250	100	전남	180	1,480*
울산항	450	100	포항(포스코)	300	70	대전	200	0
인천·평택항	250	200	강원	70	20	충남	580	80
군산항	350	100	경남	325	410	충북	300	300
제주항	50	50	대구·구미	850	130	광주	250	40

\* 전남 32개소 : 여수 6개소 700여명, 광양 16개소 600여명, 순천·곡성 등 10개소 180여명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
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, 한승한 주무관, 최용민 주무관(☎ 044-201-4018,  
4019, 402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